

밝고 쾌적한 公園환경 조성

內藏山國립공원 北部支部長 鞠 塚 煉

※ 編輯者註：이 글은 본회 내장산국립공원 북부 지부장인 국채업씨가 87년도에 내장동 정화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된 이래 단풍나무 조성 등에 노고를 다한 사실이 계재된 정화사업 성공사례집 2권에 게재된 내용이다.

슬기로운 관광풍토를 조성하여 국립공원 내장산의 수려한 모습과 고양된 질서의식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민들의 소망…

내장동은 호남의 금강산으로 아름다운 계곡 기암괴석의 명승지이며 단풍의 명소로서 소백산맥의 줄기인 노령산맥에 위치한 국립공원 내장산이 자리잡고 있어 해마다 탐방객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곳이다.

이러한 탐방객에 편승한 상인들은 호객행위와 행상인들로 관광지 질서가 문란하였고 바가지 요금등으로 내장산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다. 정직한 관광풍토를 조성하여 명승지인 내장산의 수려한 모습과 고양된 질서의식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민들의 소리가 일어났고, 이에 우리 위원회는 그 뜻을 받아들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첫째, 상거래질서 확립=내장산은 단풍의 명소로 가을철 단풍성수기에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계절관광지인 관계로 일부 주민이 바가지 요금으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도덕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인 1조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상가를 환경방문, 바가지 요금 추방과 친절한 손님맞이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의외로 결과가 빨랐다.

둘째, 행락질서 확립=관광지의 행락질서계도를 위해 매주말과 공휴일을 기해 위원들이 공원지역 내를 계속 순찰하며 고성방가행위와 음주, 풍기 문란행위 오물투기행위 등을 지도 계몽하고 차량통제 및 관광객의 질서의식고취를 위해 매일 계도를 실시하며,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센타를 설치한 뒤 야영장 산장 및 민박촌을 수시로 방문하여 청소년 혼숙 방지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귀가토록 조치하여 관광지에서의 청소년 탈선을 최대한 방지하였다. 한

편 관광시즌 때마다 발생하는 미아보호 대책으로 청소년보호센타에 미아를 보호하고 파출소나 관리사무소측에 방송을 의뢰하여 부모를 찾아주거나 찾아갈 수 있도록 주선하여 인정과 안정감이 넘치는 관광지를 만드는 데도 주력했다.

세째, 오염방지=내장산을 보호하고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 본 위원회에서는 매월 1회씩 오염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내장산 계곡과 원적암, 금선폭포, 능선사찰, 내장천 주변을 정리함으로써 관광지의 자연환경 오염과 혼순을 최대한 방지하였고,

네째, 잡상인단속=내장산의 큰 병폐는 외부에서 잡상인이 몰려와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받는가 하면, 조잡하거나 비위생적인 음식을 판매하고 변태영업을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자 본 위원회에서는 84년부터 내장버스터미널앞에 기금 5십만원을 들여 이동파출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주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잡상인과 호객행위를 단속, 관광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내장동위원회에서는 천혜의 명승지를 보호하고 밝고 명랑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였으나, 여기에 만족치 않고 제일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2차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부계획을 세워 60명의 우리 위원들은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먼저, 자체정화활동 강화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도박행위와 호객행위·변태영업행위·잡상인 단속, 바가지요금을 단속하고, 행락질서 계도반을 편성하여 거리질서계도, 승하차질서계도, 보행질서계도 등을 실시하여 질서가 확립된 내장산을 만들고 그 다음으로 자연보호 및 자연정화운동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되 가져가기와 안버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위와 같은 활동에 참여해 음으로써 위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